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관협력사업 제안서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개요

- 비대면 서비스 발달로 서울지역 플랫폼 종사자 약 21만명(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업무 및 휴게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노동환경이 열악함
- 이에 서울시는 전국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여 휴식공간 및 음료 제공 등 휴게·편의서비스를 제공중임
 - 이동노동자 쉼터 8개소 상시 운영(2023년 8월 기준 약 46,029명 이용)
 - 2023.11~12월 찾아가는 쉼터(캠핑카를 개조하여 밀집지역 순회) 운영예정

이동노동자쉼터 민관협력사업 제안사유

- 사회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관련 기업의 사회공헌 지원활동 및 관심이 늘어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 및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산
 - LG전자 에어컨 기부(21년), 롯데칠성 “이동노동자 생수지원” (21~)
 - MBN TV 갑질월드 서울시 쉼터 내 “이동노동자” 촬영 및 방영(23.2월)
 - 코라콜라음료주식회사 “조지아 에스프레소 커피” 1,050개 기부(23년)
- 현재 서울시 운영 쉼터는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고 접근성이 높지 않아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민관협력 필요성 증대
 - 협력 예시 : 민간시설(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내 일부 유휴공간을 제공하여
 흑한기·흑서기 등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추진계획

- 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민관협력사업 협약 추진 : 상시
 - 공동 보도자료 배포(협약 체결),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등

추진효과

- 이동노동자 노무환경개선 및 노동자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 기업 이미지 제고



서초쉼터(서초구 사평대로 354)



북창쉼터(중구 세종대로 14길 38)



합정쉼터(마포구 양화로 73)



서틀쉼터(은평구 통일로 680)



미디어쉼터(마포구 매봉산로 37)



22년 찾아가는 쉼터(캠핑카 이동차)



서대문쉼터(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강남쉼터(강남구 테헤란로 152)